

17世紀 知識人の 日本觀

河 宇 鳳

I. 머릿말

III. 17世紀 後半期の 日本觀

II. 17世紀 前半期の 日本觀

IV. 맺음말

I. 머릿말

壬辰倭亂은 조선시대의 역사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크나큰 변화의 계기를 초래케 해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조선전기적인 제질서를 거의 와해시키며 새로운 체제의 재편을 필요로 하는 시대구분적인 의미를 지녔다고도 평가되고 있다. 壬亂은 또한 국제관계에서도 크나큰 변화를 초래케 하였다. 이 전쟁의 당사국인 일본에서는 豊臣政權에서 德川幕府로 정권이 바뀌었고 중국에서도 壬亂이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어 明에서 淸으로 왕조가 교체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의 對外關係도 크나큰 변화와 시련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壬亂 後 10여년만에 일본과의 國交는 재개되었지만 당시의 朝鮮後期人들의 對日本認識은 前期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종래 막연하게 이웃나라로서만 이해되어 왔던 일본이 이제 조선의 운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라로 등장하였고, 일반 국민들도 일본인들을 직접 체험해 봄에 따라 일본인에 대한 관념이 조선전기와는 달리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本稿에서는 壬亂이 朝鮮人の 日本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구체적으로 壬亂後 17세기의 朝鮮人の 日本觀은 어떠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

다. 그 중에서도 壬亂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17세기 前半期の 朝鮮知識人の 日本觀을 보고 17세기 後半期の 그것에 대해서는 洪汝河, 許穆 등 일본에 관해 중요한 기록들을 남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

II. 17世紀 前半期の 日本觀

17세기 前半期에 일본에 관해 기록을 남긴 사람은 대부분 壬辰倭亂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들 중 일본에 관해 주목할 만한 기록을 남기고 후세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는 壬亂時의 被擄人인 姜沆(1567~1618)과 實學者 李晬光(1563~1628)을 들 수 있다.

睡隱 姜沆은 牛溪 成渾(1535~1598)의 門人으로 退溪學派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壬亂時에는 刑曹佐郎으로 재직하다가 1597년 丁酉再亂時 戶曹判書 李光庭의 從事官으로 南原에서 군량공급의 임무를 맡았다가 이해 9월 全南 靈光 앞바다에서 倭將 藤堂高虎의 水軍에 잡혔다. 그 후 일본에 잡혀가 大洲・大阪・伏見 등지에서 2년 8개월여 포로생활을 하다가 1600년 5월 귀국하였다. 특히 伏見에서는 일본의 相國寺의 禪僧이었던 藤原惺窩와 교류하면서 그에게 조선의 주자학을 전해주었다. 藤原惺窩는 그후 유학자로 변신하여 근세 일본유학의 開祖가 되었는데 거기에 姜沆의 영향이 지대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²⁾ 그는 일본에서의 포로로 억류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본 주제와 관련된 기존 논고로는 李萬烈, 「芝峯 李晬光 研究...그의 行蹟과 海外認識을 중심으로...」(淑大史論 제 6집, 1971)가 있고, 韓永愚의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東事』를 중심으로...」(韓國學報 제40집, 1985, 一志社), 「17세기 中葉 嶺南南人の 歷史敘述 洪汝河의 『集纂麗史』와 『東國通鑑提綱』...」(邊太燮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85, 三英社) 등의 논고에서 許穆, 洪汝河의 日本認識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이 있을 뿐이다.

2) 이 점에 대해서는 『儒者 姜沆と 藤原惺窩』 제 1호 (姜沆先生文化交流碑建立委員會, 1984, 日本)에 姜在彥氏의 「姜沆と 江戸儒學」 등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된 상황속에서도 위협을 무릅쓰고 「賊中封疏」를 써서 조선의 조정에게 전하고자 하였고, 귀국시에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詣承政院啓辭」를 올리는 등 일본의 정세와 사회상을 조선에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일본에서의 전문을 기술한 기록들을 모은 것이 『看羊錄』인데, 이 책은 그의 死後 1654년(孝宗 5年) 門人 尹舜舉에 의해 편집되어 1656년에 간행되었다. 『看羊錄』의 내용은 「賊中封疏」「詣承政院啓辭」 외에 「賊中聞見錄」「告俘人檄」「涉亂事迹」과 俞榮(1607~1664)의 序文, 尹舜舉의 跋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³⁾ 「賊中封疏」는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姜沆이 倭情에 대한 기록과 賊魁가 죽은 뒤의 奸僞를 기록해 올리려 했다는 의도대로 당시의 일본의 정세와 사회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즉 일본의 역사《吾妻鏡》을 보고 정리한 것이라고 밝힘)와 지리, 天皇과 關白의 유래와 실상, 일본글자, 神道와 佛教, 王亂時 참가국과 장군, 일본의 군사제도와 전술, 倭人の 城邑과 守城技術, 무기, 일반백성의 생활상과 풍속, 豐臣秀吉 死後의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 전의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賊中聞見錄」은 「倭國百官圖」, 「倭國八道六十六州」로 나누어져 있다. 「倭國百官圖」는 일본의 천황 이하 관직의 명칭을 기록한 것이고, 「倭國八道六十六州」는 일본 전국의 지리와 물산 등을 기술한 일종의 지리지적 기록인데 아주 상세하다. 그 후반부에는 임란시 조선을 침략해 왔던 倭將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기록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賊中封疏〉를 보충하는 의미를 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詣承政院啓辭」에는 藤原惺窩 등 日本僧과 교류한 사실과 함께 일본의 풍속에 대한 기술이 있다. 예컨대 일본의 기술과 기술 우대 풍조, 궁실, 일본의 종교(특히 불교의 僧官制度和 중들의 생활상, 日本 神道の 盛況狀과 神社 등을 자세히 소개), 일본의 대외관계, 조선과의 통행로, 일본의 지진 등이 서술되어 있

3) 『看羊錄』에 대해서는 李乙浩, 「看羊錄 解説」(韓國名著大全集 『看羊錄』, 1972, 大洋書館), 朴鍾鳴, 「看羊錄 解説」(東洋文庫 440 『看羊錄』, 1984, 平凡社, 日本) 등의 解題 참조.

다.

『看羊錄』은 비록 짧은 기간이고 억류된 상황 속에서 써여진 것이지만 당시의 일본견문기 중에서는⁴⁾ 가장 상세하면서도 체계적인 저술로서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看羊錄』은 申叔舟의 『海東諸國紀』와 함께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일본 문제에 관한 한 가장 많이 인용된 서적중의 하나였다.⁵⁾

그러면 姜沆의 日本觀은 어떠하였을까?

『看羊錄』에 보이는 姜沆의 日本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姜沆의 일본인에 대한 관념은 부정적이었다.

이 점은 그의 친척이 目前에서 일본군에게 살해된 만큼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에게 있어 壬亂의 원흉인 ‘賊魁 秀吉은 이리같은 禍心을 가진 새끼 같은 종자’이고, 일본인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犬羊의 무리’이며, 일본은 ‘漆齒의 더러운 나라요 橫目的 異類’일 수 밖에 없었다.

둘째, 그는 일본의 풍속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소개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그는 당시 조선과 달리 일본에서는 佛教와 神道가 성행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

4) 壬亂中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의 견문기로는 『看羊錄』 외에도 魯謫(1566~1622)의 『錦溪日記』와 鄭希得의 『月峯海上錄』이 있으나 기록의 정확성이나 체계성, 사료적 가치, 후세에 끼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看羊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통신사행으로 1596년 일본을 갔다 온 黃愼(1560~1617)이 지은 『日本往還日記』가 있다. 이 사행록은 사행일기 외에 끝머리에 간단한 ‘聞見錄’(따로 제목을 붙이거나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음)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역사·지리·관제·五民·물산·풍속·화폐·무기, 군제, 법률, 형벌제도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 사행록의 ‘聞見錄’은 『看羊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략한 편이지만 이후 조선후기 통신사행원들의 일본사행록의 하나의 모범이 된 것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기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예컨대 李睟光의 『芝峯類說』, 李瀾의 『星湖僿說』, 安鼎福의 『東史綱目』 『列朝通紀』, 李德懋의 『蜻蛉國志』 등에도 『看羊錄』은 가장 중요한 참고도서 중의 하나로서 인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일본을 사행한 통신사증에게도 『看羊錄』은 일종의 안내서로 인용되었는데 1763년 통신사행의 正使이자 『海行摺載』를 편찬한 趙曦은 사행시 『看羊錄』을 항상 휴대했다고 한다.

여 그것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면서도 일본인의 그러한 성향을 미신적이라고 보면서 다소 야만시하였다.⁶⁾ 그러한 한편으로 그들의 기술을 우대하는 풍조를 긍정적으로 소개하였고, 또 일본인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를 비판하면서도 명예롭게 죽은 자의 후손을 대접해 주는 그들의 풍속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쟁에서의 용맹을 북돋우는 힘이 되고 있음을 조선과 비교하면서 소개하였다.

셋째, 姜沆은 일본의 군사제도와 기술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였는데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것들이 지닌 장점과 약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그들의 군사제도가 각 諸侯別로 독립되어 있고 兵農一致의 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조선의 군사제도와 壬亂 당시의 實態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였다. 또 일본인의 성씨는 기술이 조선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우수하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넷째, 姜沆은 당시의 韓日關係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조선의 방어정책이 남쪽(日本)을 가볍게 여기고 북쪽(女眞族)을 중히 여긴 것이 당시의 실상을 잘못 안 실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일관계에서의 對馬島의 역할에 대해 자신이 전해들은 지식을 근거로 상술하면서 당시 조정의 對 對馬島 宥和政策을 비판하였고, 이어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하였다.⁷⁾

芝峯 李晳光은 明宗朝에 태어나 宣祖・光海君・仁祖朝를 살면서 壬辰倭亂과 丁卯胡亂을 직접 정치일선에서 겪은 인물이다. 관직생활도 약간의 浮沈은 있었지만 仁祖朝에는 工曹判書・吏曹判書・大司憲을 지내는 등 비

6) 『看羊錄』 「賊中聞見錄」

“蓋其風俗 小黠大痴 衆所尊譽 不求端詛末 而一向趨之 一番昏迷 終身不解 蠻夷之陋如是矣”

7) 姜沆은 이 대책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것에 대해, “待倭奴 莫先於待馬島 待馬島無出於此策 後之籌邊之士 備此奴之勢者 爲國家謀此奴 必知所擇矣”(上同, 〈賊中聞見錄〉 西海島九國)라고 하여 나름대로 자부심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교직 무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깝게 지낸 교우는 서인계통이 많았지만 당시 東西分黨의渦中에서 그는 어느 편당에도 들지 않으며 당쟁을 비판하였다. 그는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해 壬亂이 발발하자 바로 慶尙防禦使 趙徹의 從事官으로 錦山에 간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조를 호위하면서 함경도 宣諭使로 활동하기도 하고 중국에 사행을 가는 등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학문적으로는 대체로 栗谷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실학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⁸⁾ 그는 또 1590년(宣祖 23년) 聖節使의 書狀官으로, 1597년(宣祖 30년)에는 進慰使로, 1611년(光海君 3년)에는 奏請副使로 도합 3차에 걸쳐 明에 사행을 다녀왔다. 이 3차에 걸친 북경행을 통해 그는 安南 琉球 暹羅國의 사신과 교류하였고⁹⁾ 마테오 리치가 만든 유럽지도를 보았으며 『天主實義』와 『重友論』 등 서양서적을 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의 학문이 당시로서는 드물게 백과전서적인 박학성을 띠게 되고 개방적인 세계관을 소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저서로는 『芝峯類說』 20권을 비롯하여 『芝峯集』 31권, 『昇平誌』 2권 등이 있다. 『芝峯類說』은 그가 1613년(光海君 5년) 벼슬을 사직한 후 그동안 계속 기록해 왔던 備忘記들을 정리 편집하여 1614년에 저술하였다. 이 책은 총 25부 182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보다 세분된 항목으로는 모두 3,435조항이 수록되어 있는 일종의 백과전서로서 인용서목이 348권, 수록된 人名이 2,265명에 달하는 등 그의 고증적이고 實事求是의인 學風이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저서이다.¹⁰⁾ 『芝峯類說』이 가진 이러한 성격으로 하여 그는 조선후기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8) 『芝峯集』 「序文」에서, “道在於民生日用之間 飢食而渴飲 卽道也 外此而言道者非矣”라고 하여 그의 학문의 바탕이 ‘實學’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9) 2차 사행시의 사행록인 『朝天錄』에는 安南 使臣과의 교류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3차 사행시의 사행록인 『續朝天錄』에는 琉球와 暹羅의 使臣과 筆談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0) 柳洪烈, 「實學의 先驅者 芝峯 李睟光」(韓國學 제20집, 韓國學研究所, 1979) 참조.

李睟光은 비록 일본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그가 젊은 나이에 직접 겪은 壬亂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 『芝峯類說』에는 壬亂에 관한 기사가 곳곳에 반추되고 있으며 그밖에 수록되어 있는 일본 관계 기사를 볼 때 일본은 그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芝峯類說』에는 일본에 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諸國部「外國」의 기사를 비롯하여 일본의 지리, 역사, 풍속, 대 조선관계사, 임진왜란, 무기, 군사제도, 기술, 언어, 물산 등에 관한 단편적인 기사가 대략 55개 정도가 수록되어 있다.¹¹⁾

이상의 기사를 중심으로 『芝峯類說』에 나타나 있는 李睟光의 日本觀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에게 있어 일본에 관한 문제는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諸國部の「外國」에는 安南國을 위시하여 ‘구라파국’에 이르기까지 약 40여개 국가가 소개되어 있는데¹²⁾ 그 가운데서도 일본에 관한

11) 이것들을 내용별로 편의상 분류하여 수록되어 있는 소재치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a. 종합적인 소개: 諸國部「外國」
- b. 지리: 文章部 三「唐詩」, 地理部「島」, 「井」
- c. 풍속: 雜事部〈異聞〉, 技藝部〈畫〉
- d. 對日關係: 災異部「人異」, 文章部 一「東文」, 文章部 六「東詩」, 官職部「相臣」, 「使臣」, 外道部「禪門」, 人物部「節義」, 兵政部「征伐」, 服用部「綵幣」, 君道部「政治」, 兵政部「征伐」, 雜事部「異聞」, 人事部「喪葬」
- e. 壬辰倭亂: 災異部「物異」, 地理部「山」, 「島」, 「井」, 君道部「法禁」, 兵政部「征伐」, 「寇賊」, 官職部「史官」, 「使臣」, 文章部 七「詩藝」, 人物部「節義」, 「烈女」, 外道部「仙道」, 「禪門」, 宮室部「陵墓」, 禽蟲部「獸」, 技藝部「方術」, 「音樂」, 雜事部「徵應」
- f. 武器: 兵政部「兵器」, 技藝部「雜技」
- g. 軍制: 兵政部「兵制」
- h. 기술: 服用部「器用」
- i. 언어: 地理部「田」
- j. 물산: 服用部「器用」, 「金寶」, 植物部「藥」, 「酒」, 草木部「木」, 禽蟲部「獸」, 「鱗介」

12) 이들 내용의 대부분은 『吾學編』 등 중국의 서적에서 나오는 기사를 요약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자신의 체험(琉球, 安南, 暹羅 使臣들과의 교류)과 傳聞(예컨대 趙完壁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도 적지 않다. 하영돈 그는 17

항목이 서술분량면에서 가장 많다. 그는 이 日本傳에서 『海東諸國紀』 『看羊錄』과 통신사행의 기사 등 조선측의 기록과 중국측의 『漢書』 『後漢書』 『續文獻通考』 『吾學編』 『山海經』 『事文玉屑』 등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芝峯은 이 외에도 임란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국한 趙完壁을 직접 만나 일본에 관한 소식을 알고자 했든지 자신이 접할 수 있는 기록이나 傳聞을 가능한대로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壬亂이나 한일관계사 등 중요한 문제 뿐만 아니라 초목이나 물고기 등에 이르기까지 관계있는 것은 모두 기록하는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다. 50여개 항목에 이르는 일본관계기사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李睟光은 일본에 관한 한 당시로서는 누구못지 않은 지식의 소유자라고 생각되지만 한편 한계성과 오류도 없지 않다. 우선 그의 일본에 관한 지식은 체계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의 기술은 체제면에서 볼 때 체계가 없으며 내용면에서도 단편적 지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그가 참고한 서적은 모두 조선과 중국의 것 뿐이며 일본측의 서적은 한권도 없다. 그 결과 기존의 편향된 日本認識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사실에 대한 誤認도 있었다. 예컨대 對馬島主 平義智는 宗義調의 아들이자 賜姓을 받아 平氏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李睟光은 豐臣秀吉이 宗義調를 멸하고 平義智를 세운 것으로 이해하였다.¹³⁾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은 李睟光뿐만이 아니고 柳成龍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¹⁴⁾ 이러한 오류는 일본사회의 풍속(賜姓制度)을 모르고 조선식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芝峯만이 아니라 당시 조선 지식인의 일반적인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

세기 前半期の 조선에서 대외적 지식이 가장 풍부했던 인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李萬烈, 〈앞의 논문〉 참조.

13) 『芝峯類說』 諸國部「外國」日本

14) 『順菴先生文集』 卷 10 「東史問答」 己卯

“宣廟朝 名臣滿朝 若西厓諸公 不知平義智爲宗義調之子 又不知平秀吉爲何人 而欲與之應變 此誠我人之拙處也”

졌다.

둘째, 李睟光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정치 군사적인 면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그가 주로 서술한 분야는 對日戰爭史와 對日關係史, 그리고 일본의 무기 군사제도 등이었다. 특히 壬亂에 관한 기술이 가장 많다. 壬亂에 관한 기사는 『芝峯類說』全篇을 통해 끊임없이 나오는데 내용상 전혀 관계없는 듯한 항목에서도 壬亂과 결부시켜 서술되어 있다. 그것은 그에게 壬亂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던가를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壬亂에 대한 기록을 정리 보존하고 또 장래의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자기반성과 대비를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것과 함께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對日通信使行의 역사와 壬亂 後 通交의 再開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셋째, 정치 군사면에서의 큰 관심과 그에 따른 기록과는 달리 문화적인 면에서의 일본에 관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芝峯의 日本認識의 한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의 풍속에 관한 약간의 소개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詩文이나 서적, 종교, 학술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儒道部, 經書部 1, 2, 3, 文字部, 文章部 1~7까지는 『芝峯類說』의 내용 중에서도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중국과 조선의 것 뿐이고 일본에 관한 기사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가 일본의 문화에 대해 무시하였던 당시 조선 지식인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芝峯 자신의 노력의 부족 내지는 당시의 상황에 따른 불가능의 결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단지 芝峯의 학문적인 성격과 『芝峯類說』의 기술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17세기 前半期の 상황에서는 일본의 문화로서 조선에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으며 일본

15) 註 11)의 분류 참조. 또 兵政部「征伐」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과의 전쟁사 및 壬亂關係記事로 구성되어 있어 그의 관심의 비중을 알게 해준다.

의 서적도 전래된 것이 없었다. 통신사행원을 통한 傳聞도 아직은 별로 없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점은 芝峯이라는 한 개인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17세기 前半期 朝鮮知識人の 日本認識의 공통적인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芝峯의 日本觀과 日本人觀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壬亂의 직접체험자로서 그의 日本觀과 日本人觀은 壬亂의 충격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壬亂의 참상과 일본군의 만행에 의해 형성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芝峯類說』과 『芝峯集』의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은 ‘倭奴’로 때로는 ‘異類(禽獸와 같은 무리라는 뜻)’로 표현되기도 하였고, 豊臣秀吉은 ‘倭酋’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芝峯의 日本人觀에는 姜沆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감정적 적개심은 상당히 절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의 日本觀 내지 日本人觀에는 구체적 만행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일 뿐 華夷觀에 입각한 夷狄視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특히 諸國部 ‘日本傳’ 등에 나오는 서술은 아주 담담하고 객관적인 기술로서 17세기 前半期の 분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예외적일 정도라고도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芝峯은 조선후기에 있어서 壬亂과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嚆矢(상당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다섯째, 일본의 문화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기술과 무기에 대해서는 그것의 우수성을 칭찬하며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水車에 대해서,

“중국 水車의 제도는 魏의 馬均이 처음 만들었는데 밭에 물대기가 아주 편리해서 온 천하가 모두 이것을 쓰게 했다. 지난 해에 楊萬世(1607년 사행의 學官으로 수행한 인물: 筆者 註)가 일본에 그 제도를 배워가지고 ‘왔는데 몹시 편리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졸렬해서 이것을 즐겨 쓰지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¹⁶⁾

16) 『芝峯類說』服用部「器用」

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일본 水車의 우수성을 지적하면서 조선으로 수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그가 부정적인 日本人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술 중 우수한 것이 있으면 수용해야 한다는 이 주장은 그의 실학자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의 객관적인 日本認識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또 일본에서 전래되었다고 하는 螺鈿器와 접는 부채(倭扇)의 편리함을 칭찬하기도 하였고, 안경과 自鳴鍾이 일본에 있었다는 사실도 기술하였으며¹⁷⁾, 일본의 鳥銃은 성능이 천하제일이라고 한 기사를 소개하기도 하였다.¹⁸⁾

Ⅲ. 17世紀 後半期の 日本觀

1. 洪汝河의 日本觀

木齋 洪汝河(1621~1678)는 경상도 安東출신으로 黨色으로는 영남남인에 속하였고 學脈으로는 당시 李滉, 柳成龍, 鄭經世로 이어지는 嶺南士林의 학통을 이어 받았다.¹⁹⁾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洪鏞)의 스승이기도 했던 鄭經世를 만나 지도를 받으며 朱子の 四書集註를 공부하였다고 한다. 당시 鄭經世는 嶺南士林의 領袖였는데 그러한 영향속에서 그는 退溪와 朱子를 가장 존경하였다 한다. 그의 관직생활은 1654년(孝宗 5年) 그의 나이 33세 되던 해에 文科에 합격하면서 시작되어서 1660년(顯宗 元年)으로 사실상 마감되어 별 순탄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가 官界에 진출했던 시기가 宋時烈을 領袖로 하는 西人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17) 『上同書』服用部「器用」, 「金寶」

18) 『上同書』技藝部「雜技」

19) 洪汝河의 생애와 史書編纂에 대해서는 韓永愚, 「17세기 中葉 嶺南南人の 歴史敘述……洪汝河의 『集纂麗史』와 『東國通鑑提綱』……」(邊太燮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85, 三英社), 李萬烈, 「17, 8세기의 史書와 古代史 認識」(韓國史研究 제10집, 1974) 참조.

비록 관직은 낮았지만 上疏등으로 宋時烈과 정면으로 대립하다가 1660년에는 忠淸道 黃澗으로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다. 1년간의 유배생활을 마친 뒤 그는 官界에서 물러나 낙향하였는데 그 후로는 학문연구와 역사서의 저술에 몰두하였다. 그는 특히 朱子學에 밝아 ‘士林의 宗師’로 일컬어졌으며 17세기 후반기 이후로 嶺南士林으로부터 추앙을 받은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²⁰⁾ 그는 또 『彙纂麗史』와 『東國通鑑提綱』 등의 史書를 저술한 역사학자로 더욱 유명하다. 그는 일찍이 1639년(仁祖 17년) 그의 나이 18세 때에 國史의 연구에 뜻을 두어 高麗史의 저술에 착수하였다. 그로부터 몇년 뒤에 완성하였다는 그 책이 바로 『彙纂麗史』이다.²¹⁾

『東國通鑑提綱』은 낙향한 후 1672년(顯宗 13년) 그의 나이 51세 때 완성하였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조선초기의 史書 『東國通鑑』을 綱目法에 따라 改撰한 것으로 모두 13권이다. 내용은 고려시대 이전의 古代史를 다루고 있으므로 『彙纂麗史』와 연결하면 하나의 通史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俞策(1607~1664)의 『麗史提綱』과 함께 조선후기 綱目體 史書의 선구를 이루고 있으며, 箕子—馬韓—新羅로 이어지는 고대사의 체계화를 통해 正統論에 바탕을 둔 한국사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彙纂麗史』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行狀」의 기사로 보아 1640년대 초반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原題는 『木齋家塾彙纂麗史』인 점으로 보아 家塾用으로 보관되어 주로 그의 門人들 사이에서만 읽혀져 오다가 그의 死後 100여년이 지난 18세기 후반기에 간행되었다.²²⁾ 이 책의 체제는 紀傳體로 世家·志·列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高麗史』를 바탕

20) 『肅宗實錄』 卷 12 肅宗 十五年 十月 戊辰條

“御覽講 大司憲李玄逸又言 故司諫洪汝河有經學 行已端方爲南方領袖 斥宋時烈坐廢十年 及上卽阼 嘗以司諫召 未及拜命而死 所著麗史彙纂 頗得史法 趙綱嘗稱之 此不可泯沒 宜加褒贈 上從之 遂贈副提學”

21) 『木齋先生文集』 卷 12 〈洪汝河 行狀〉

“己卯 麗史屬草 刪煩提要 綱目俱舉… 閱累世而書成”

22) 鄭宗魯가 쓴 『彙纂麗史』의 〈序〉

으로 하여 축약 재정리한 것이다. 『高麗史』 139 권을 3분의 1로 축약하여 47 권으로 만들었지만 단순히 줄인 것은 물론 아니며 그가 凡例에서 밝힌 바와 같이 『高麗史』와는 다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찬술하였다.²³⁾ 특히 주목되는 것은 「外夷列傳」을 신설하여 日本・契丹・女眞 등 주변 국가를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外夷列傳」을 넣은 동기에 대해 凡例에서 '歷代의 史書가 모두 外夷附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예에 따라 契丹傳・日本傳 등의 傳을 만들었다'²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歷代史는 中國의 正史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洪汝河는 거란 일본 등의 국가의 역사 뿐만 아니라 中國史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 나라의 史書에 포함하여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春秋』가 魯나라의 역사이면서도 宗周와 列國의 일을 다 기록하였고, 중국의 歷代史法이 外國의 興亡, 戰伐, 邊境分割 등을 모두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의 史書는 중국의 역사를 일찌기 기록한 적이 없다'²⁵⁾고 하면서 실제 「世家」에서 中國史를 넣어 서술하였다.²⁶⁾ 이점은 그가 중국의 역사를 '本紀'로 취급한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역대 中國正史의 史體를 본따 조선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외국의 역사를 併記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양란 후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나

23) 洪汝河는 『彙纂麗史』의 「凡例」에서 종래의 『高麗史』에다 10분의 1을 보태고 10분의 6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世家」를 대폭 줄여 7권으로 한 대신 「列傳」은 27권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列傳의 비중을 높였다는 점, 列傳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물을 추가하고 「外夷傳」을 넣은 점, 「志」에서도 자신의 「志論」을 첨가한 점, 「世家」에 中國史를 첨가한 점 등이 『高麗史』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보기 들이다.

24) 『彙纂麗史』 「凡例」 제 9 조 그런데 『彙纂麗史』의 목차에는 契丹傳・女眞傳・日本傳이 각각 따로 나와 있는데 비해, 본문에서는 女眞에 관한 기록은 契丹傳에 포함되어 서술되어져 있다.

25) 『上同書』 「凡例」 제 1 조

26) 그는 또 列傳에서 「行人傳」을 신설하여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 업적을 남긴 9인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史記行人無傳 此有之 何也 夫使事之重也 尙矣 春秋時 列國遣使相朝 夫子皆錄之 又嘗言之曰 使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也 其微旨可見已' 라고 하며 『史記』에도 없는 「行人傳」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점 또한 대외관계를 증시하는 그의 독특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타나고 있었던 小中華意識의 구체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거란 일본 등을 ‘外夷’로 분류하여 列傳에서 기록한 것은 한국사 서술에서 효시를 이룬 것으로 朝鮮=華, 契丹·日本=夷라고 하는 조선 중심의 華夷觀에 바탕을 둔 것이다.

『彙纂麗史』의 「日本傳」은 그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록인데, 여기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洪汝河의 日本觀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洪汝河는 이 「日本傳」을 만든 동기에 대해.

“오랑캐로서 동해중에 거하며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려 백여개를 헤아린다. ……무릇 오랑캐의 나라로서 강대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미약한 것은 모두 변경의 우환이 되지 않으니 고찰하거나 서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커서 우리나라의 이해에 관건이 되어 왔다. 그 羈縻得失에 따라 관계되는 바가 또 한 중요하므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日本傳을 만들었다.”²⁷⁾

라고 하여 일단은 정치적 군사적 관점에서의 知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日本傳」에 수록된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역사·國號·天皇의 世系와 職事·關白의 기원과 역할·국내의 지리·물산·풍속·종교·형법 제도·官爵의 제도와 官品·食邑과 養兵方式·田制와 稅制·五民·국민성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마지막으로 新羅時代 이래로 조선시대까지의 韓日關係史가 상술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 「日本傳」은 『芝峯類說』 諸國部 ‘日本傳’보다 체재면에서 훨씬 더 갖추어져 있고 내용면에서도 상세하다.

洪汝河가 이 「日本傳」을 저술하면서 어떤 책을 참고하였으며, 일본에 관한 지식을 누구로부터 얻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가 명시적으로 인용서적을 밝힌 것은 『北史』 「日本傳」 뿐이지만 서술내용으로 볼 때 1636년 통신사행의 副使로 수행하였던 金世濂(1593~1646)의 일본사행록인 『海

27) 『上同書』 卷 49 「日本傳」

槎錄』의 「見聞雜錄」을 주로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海槎錄』에 나오지 않는 기사도 상당히 많이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또 다른 것을 참고한 것이 확실하다.²⁸⁾ 전체적으로 볼 때 「日本傳」은 어느 하나의 기록을 요약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서적과 견문 그리고 자신의 노력(특히 한일관계사의 서술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체제하에 재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기사 사이에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견을 논평의 형식으로 附記해 놓은 점도 특징이면서 동시에 그의 日本認識을 이해하는데 좋은 점이다.

다음으로 洪汝河의 日本觀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그의 일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일본연구에 따른 「日本傳」의 저술을 들 수 있다. 그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역시 정치 군사적인 측면이 주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의 사회상과 풍속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苙峯의 기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기술되어 있다. 서술내용의 다양성, 체제의 세련성, 독자적인 논평의 제시라는 점에서 日本認識의 심화 내지 발전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²⁹⁾ 조선후기의 지식인 중에서 일본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저술을 남긴 사람들로서는 대체로 남인계통의 학자들이 많았다. 예

28) 金世濂 외에 그의 日本認識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인물로는 1643년 사행의 副使로 일본을 다녀왔던 趙綱(1586~1669)을 들 수 있다. 趙綱은 洪汝河와 같은 영남남인에 속하였고, 또 그가 『彙纂麗史』를 칭찬하였다는 사실(註 19 참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는 있으나 직접 만났는지의 여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또 그가 남긴 『東槎錄』은 1639년 이후에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1639년에서 1640년대 초반에 걸쳐 서술된 『彙纂麗史』의 「日本傳」의 저술에 직접적으로 참고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내용적으로는 『看羊錄』에 나오는 기사가 부분적으로 참고되었는 것 같으나 이것만이 아니다.

29) 그러나 그 내용의 풍부성과 관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洪汝河의 일본에 관한 지식에는 역시 오류도 없지 않다. 예컨대 關白의 기원을 고려말 九州節度使였던 源了俊으로 잡은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은 일본서적을 직접 참고하지 않았던 만큼 당시의 조선의 지식인에게서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권대 許穆, 李瀾, 安鼎福, 丁若鏞, 韓致禧 등이 그들이다. 막연한 추측이긴 하지만 洪汝河의 「日本傳」이 그 후의 남인 실학자들에게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욕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³⁰⁾

둘째, 그의 日本觀은 역시 ‘外夷傳’이 말해주는 바 그대로 華夷觀에 입각하여 일본을 夷狄視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일본의 천황에 대해 ‘그 나라의 酋長이 천황을 僭稱하였다’고 하였고 천황의 승계방식이 동족 결혼을 허용하며 또 여자에게도 계승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예의를 모르는 풍속’이라고 평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의 日本觀은 『再造藩邦志』를 저술한 西人系의 申昶(1613~1653)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申昶의 反日排淸意識에는 감정적 적개심이 보다 더 노출되는 데 비해 洪汝河의 華夷觀은 申昶의 그것보다 더 이념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申昶의 華夷觀이 崇明的인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해 洪汝河의 그것은 보다 朝鮮中心的인 小中華意識을 띠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에 대한 관념도 洪汝河에 있어서는 감정적 적개심이 절제되는 대신 보다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³¹⁾ 그는 또 당시의 일본 사회의 성격에 대해,

“오늘날 일본을 보니 싸움을 좋아하며 어지러이 무기를 익힌다. 제도와 형벌이 몹시 가혹하여 나라사람들이 겁을 내어 명령이 지키지 않는 바가 없다. 郊市를 다스리고 什五之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秦나라의 遺風이 아주 많이 있으니 어찌 徐福이 가리킨 것이겠느냐.”

라고 평하였다. 즉 그는 당시의 일본이 法家的이고 武治主義的인 점에서 중국 秦나라와 아주 흡사한 사회로서 유교적인 예의를 모르는 나라로 인식하였다.

30) 洪汝河의 「日本傳」이 후술하는 許穆의 「黑齒列傳」과 安鼎福의 『東史外傳』의 저술에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그 체제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록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31) 그는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 ‘성질이 가볍고 교활하며 싸움을 좋아한다. 그러나 연약하여 통제하기가 쉽다. (倭人性狡好鬪 然弱而易制)’라고 평하였다.

셋째, 洪汝河는 일본의 군사력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再侵可能性을 경계하면서도 그 방책으로서는 외교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일본의 군사제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일본의 諸侯의 食邑制度가 바로 ‘養兵之規’임을 지적하였고, 또 당시의 일본이 ‘火器의 제조기술과 군사제도가 몹시 정교하다(鑄火器制甚精巧)’고 보았으며, ‘날마다 전술 익히기를 일로 삼는(日以習兵爲事)’ 나라라고 하면서 경계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선은 文治主義의 나라이므로 有事時 그들과 군사적으로 대결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²⁾ 그가 韓日關係史를 상세히 서술한 이유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일종의 對日有和論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에서 申晳과는 아주 대조적이며 星湖와 상통하는 바가 많다.³³⁾

2. 許穆의 日本觀

眉叟 許穆(1595~1682)은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부친의 臨所에 따라 각지를 전전하였지만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그의 조상들이 살아온 경기도 璉川에 두었다. 그는 23세 되던 해인 1618년 그에게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從兄 許厚(1588~1661)와 함께 경상도 星州에 살고 있었던 鄭述를 찾아가 뵈고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3년간에 걸쳐 사사하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鄭述의 학풍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그는 退溪 李滉—寒岡 鄭述(1543~1620)로 이어지는 退溪學派의 정통의 맥을 잇는 계

32) 『彙纂麗史』 「行人傳」

“且夫東國南北皆有敵國 日以習兵爲事 而東國介於其間 獨雍容文具爲治 疆場有警 輒以玉帛 將事使事得失 其在東國尤重也 審矣”

33) 對淸政策에 있어서도 洪汝河는 당시 宋時烈을 중심으로 하는 西人이 주장하고 있었던 伐胡論(申晳은 물론 대표적인 주장자 중의 한 사람이다.)에 대해 그것의 비현실성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韓永愚, 앞의 논문, pp. 506~7 참조) 그는 또 고려말의 倭寇의 발발원인을 麗元聯合軍의 일본정벌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도 당시로서는 독특한 점으로 실학자 중에는 星湖 李瀾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승자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黨色은 南人에 속하였지만 남인 중에서도 그의 출생지와 생활근거지가 경기지방이었던 만큼 영남남인과의 교류는 많지 않았다. 그는 近畿地方의 학문적 전통 속에서 성장하여 비록 그의 학문이 退溪學을 이어 받았다고는 하나 退溪의 學風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는 그의 외조부인 白湖 林梯(1549~1587)의 호방한 학풍과 古篆에 능했다고 하는 從兄 許厚의 영향을 받아 性理學 뿐만 아니라 老莊學에도 심취하는 등 다양한 사상적 편력을 거쳤다. 그 결과 그는 유학안에서도 당시의 주자학에 만족하지 않고 古禮·古經·古文·古篆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의 ‘古學’을 제창하여 조선후기 사상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³⁴⁾ 그런 점에서 그는 영남 성리학의 맥을 계승하였으면서도 畿湖地方의 남인 실학파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⁵⁾ 許穆의 官歷은 아주 독특하였다. 그는 56세의 老年期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라 이후 30여년간 관직생활을 하였는데, 이 기간 중 宋時烈과 1,2차 禮訟을 벌였고 또 濁南의 領袖였던 許積(1610~1680)과도 대립하는 등 淸南의 영수로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經說』과 『東事』를 들 수 있다. 『經說』은 그의 經學思想을 집대성한 저서이고, 『東事』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저술한 역사서로서 이 두 저서는 모두 1667년(顯宗 8년) 그의 나이 73세 되던 해에 완성되

34) 許穆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鄭玉子, 「眉叟 許穆 研究……그의 文學觀을 중심으로……」(韓國史論 5집, 197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金古煥, 「許穆의 學問과 思想」(韓國學報 제18집, 1980, 一志社), 韓永愚,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東事』를 중심으로……」(韓國學報 제40집, 1985) 등의 논고 참조.

35) 鄭玉子, 〈앞의 논문〉, p.212. 氏는 또 許穆의 사상과 의의에 대해, “그러므로 眉叟 許穆은 종래 생각되었듯이 朱子性理學者는 아니며, 비록 退溪에서 寒岡을 거친 嶺南性理學의 學統을 이었다고는 하지만 오랜 세월의 수련과自得을 통하여 ‘六經之學’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풍을 開進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近畿地方을 중심으로 門戶가 성립되는 소위 經世致用學派라는 南人實學派를 위한 礎石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앞의 논문, pp.231~232)

있다.³⁶⁾

『東事』는 모두 22편으로 그 체재를 보면 世家・列傳・地乘 및 外記(黑齒列傳)로 구성되어 있다. 얼핏보면 紀傳體 史書와 비슷한 듯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르다.³⁷⁾ 그가 제목을 '東事'라고 밝힌 것처럼 『東事』는 어떤 전형적인 史體를 가진 史書라기 보다는 저자의 관심에 따라 독특한 체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한 史書인 『東事』에 「黑齒列傳」이라고 하여 일본에 관한 기록이 편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형식면에 있어서도 독특하지만 서술내용도 흥미로운 바가 있어 許穆의 日本認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許穆은 「黑齒列傳」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黑齒는 동해 중에 있는 오랑캐의 強國이기 때문에 黑齒列傳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³⁸⁾ 『黑齒列傳』은 저술동기도 그렇지만 그 체재도 洪汝河의 「日本傳」과 아주 흡사하다. 서술내용은 분량면에서는 「日本傳」보다 다소 적지만 일본의 지리적 위치, 종족적 기원, 천황의 기원과 職事, 姓氏의 기원과 有力姓氏의 系譜, 德川

36) 『眉叟記言』 「眉叟 許先生 年譜」

이 해는 그가 1차 禮訟에서 패한 뒤 10여년간 정계에서 물러나 독서와 저술로 소일하였던 시기로, 같은 해에 자신의 저술을 집대성한 『眉叟記言』의 편집을 완성하였다. 許穆은 1677년 『經說』과 『東事』를 숙종께 올렸는데 임금으로부터 옆에 두고 수시로 보겠다는 批答을 받았다.

37) 예전에 紀傳體의 「志」에 해당하는 것이 『東事』에서는 일종의 地理志라고 할 수 있는 「地乘」 하나 뿐이며, 列傳도 개인의 전기가 아니라 小國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紀傳體와는 다르다. 『東事』의 체재와 각 편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韓永愚의 「앞의 논문」 참조.

38) 『眉叟記言』 「東事 序」

그런데 이 기사만으로는 그가 왜 「黑齒列傳」을 『東事』의 한 편목으로 넣었는지의 확실한 해답이 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든다. 『東事』의 世家에 속해 있는 국가로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 등 6개국이고, 列傳에 속해 있는 것으로는 夫餘, 肅慎, 四郡二府, 三韓(馬韓・辰韓・弁韓), 靺鞨, 大伽耶, 穢獯, 靺鞨(渤海), 毛羅 등과 함께 「外記」로 黑齒列傳이 포함되어 있다. 洪汝河의 『彙纂麗史』에는 契丹, 女眞傳이 「日本傳」과 함께 「外夷附錄」에 포함되었는데 비해 『東事』에서는 「黑齒列傳」만이 들어 있는 점이 다르다. 하영돈 이 점은 몹시 독특하면서도 파격적이다.

家康의 執權過程, 국내의 지리(특히 三大都市와 蝦夷, 對馬島), 풍속, 물산 등의 소개와 함께 마지막으로 일본인의 성격과 당시의 일본에 대한 총체적인 평이 비교적 짜임새 있게 수록되어 있다.

許穆은 「黑齒列傳」 외에도 그의 《記言》속에서 일본에 관한 기사를 남기고 있다.³⁹⁾

그럼 許穆은 어떤 계기를 통해 일본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 어떤 자료를 참고로 하여 「黑齒列傳」등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까? 우선 그는 통신사행을 갔다온 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가진 점이 눈에 띈다. 1643년 通信副使로 일본을 다녀온 趙綱(1586~1669)은 許穆보다 9년 연상이었지만 20대에 처음 만난 이후로 평생동안 교우관계를 유지한 절친한 사이였다. 그는 趙綱이 일본으로 사행을 떠날 때 일본의 책 중에서 『天地八陽圖』를 구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趙綱이 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를 통해 일본의 사회상에 관해 들었다.⁴⁰⁾ 다음으로는 1636년 사행의 副使로 일본을 갔다온 金世濂을 들 수 있다. 그가 金世濂을 직접 만나 교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礪溪

39) 許穆의 일본에 관한 기사는 많지 않으며 그 내용도 일본 자체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보다는 壬亂에 관한 기사와 통신사행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내용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일본을 포함한 해외인식: 「東海頌」(原集 下篇 所收), 「泛海錄」(別集) 「南北風土誌」(原集)
- b. 임란관계기사: 「東萊嬭」(原集 中篇 所收), 「西厓遺事」(原集), 「義烈傳」(別集), 「忘憂堂郭公 神道碑銘」(別集)
- c. 당시의 대일관계에 관한 기사: 「牧隱畫像記」(原集 上篇 所收), 「倭人通貨」(原集 雜篇), 「南海防戍」(上同)
- d. 통신사행이나 대일접대를 맡았던 사람과의 교류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 「趙龍洲神道碑」(原集), 「途 呂汝魯接慰倭人 序」, 「與趙日章 書」, 「與趙龍洲」, 「東溟金學士 遺卷 序」, 「東溟海綠錄 序」, 「戶曹判書 金公 神道碑銘」, 「漫浪集 序」, 「慕齊 金先生 行狀」(이상 모두 別集 所收)

40) 「趙龍洲神道碑」 「祭龍洲文」 「眉叟許先生 年譜」 등에 보면 두 사람의 평생을 통한 교류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西人과의 제 1차 禮訟에서 趙綱은 尹善道와 함께 許穆의 편을 들다가 괴를 입기도 하였다. 한편 「與趙日章 書」와 「與趙龍洲」의 서신 6편 등의 기록에는 趙綱의 일본사행을 전후해 許穆과 趙綱이 주고 받은 서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柳馨遠의 부탁을 받아 1667년(顯宗 8년)에 金世濂의 文集에 序文을 써주었고, 1657년(孝宗 8년)에는 金世濂의 일본사행록인 『海槎錄』의 서문을 썼다.⁴¹⁾ 특히 「東溟 海槎錄 序」에는 金世濂의 使行時의 행적과 함께 『海槎錄』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논평이 기술되어 있다. 그밖에 1636년 사행의 從事官으로 수행하였던 黃辰의 문집인 『漫浪集』에 대해서도 서문을 썼으며, 東萊府에 倭人接慰官으로 부임하는 呂汝魯를 전송하면서 글을 써주었다.⁴²⁾

다음으로 許穆이 일본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참고하였던 서적은 어떤 것이었을까? 위에서 본 기록들에 인용되어 있는 서적으로는 우선 『外夷誌』⁴³⁾, 崔溥의 『漂海錄』, 金世濂의 『海槎錄』, 趙綱의 『東槎錄』 등이 있고 비록 인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참고할 수 있었던 서적으로는 黃辰의 『東槎錄』, 洪汝河의 『彙纂麗史』 등을 들 수 있다.⁴⁴⁾

이제 「黑齒列傳」을 비롯한 이상의 자료를 중심으로 그의 日本觀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첫째, 許穆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그가 당시 통신사행을 통해 일본을

41) 「東溟金學士 遺卷 序」를 쓴 1667년은 『東事』를 완성한 해이다. 한편 「東溟 海槎錄 序」의 서술연대는 『眉叟記言』에는 1657년으로 나와 있으나 『海槎錄』에는 許穆의 序文의 기술연대가 1667년으로 나와 있다.

42) 「漫浪集 序」「送 呂汝魯接慰倭人 序」참조. 그런데 許穆이 黃辰나 呂汝魯와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었는지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 없다. 단지 許穆이 黃辰의 일본사행록인 『東槎錄』을 보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3) 『外夷誌』(혹은 外夷記)가 어떤 책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중국서적인 듯한데 許穆의 해외지식에 중요한 참고도서가 되었던 것 같다.

44) 『彙纂麗史』를 許穆이 직접 보았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교생을 교류하며 언제나 서적을 나누어 보았던 趙綱이 洪汝河의 『彙纂麗史』를 보고 그것을 칭찬하였다는 기록(註 19 참조)이 있으며, 또 許穆도 洪汝河의 死後 그의 帛文을 써 주었다. 洪汝河와 許穆이 당시 어느 정도 직접적인 평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남인으로서 體訟問題와 北伐論에 있어서 宋時烈을 비롯한 서인에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같은 입장에서 있었다. 또 「黑齒列傳」은 그 체제가 洪汝河의 「日本傳」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참고한 흔적이 있어 보인다.

다녀온 인물들 중 특히 1643년 사행의 副使였던 趙綱을 통해 촉발되었다고 보여진다. 그 이후 許穆은 趙綱을 통한 傳聞과 『東槎錄』 외에 金世濂의 『海槎錄』, 洪汝河의 『彙纂麗史』의 「日本傳」 등의 기록을 통해 일본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에 대한 몇몇의 단편적 기록과 함께 「黑齒列傳」을 저술하였다. 「黑齒列傳」은 이상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저술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그것들을 단순히 정리한 것은 물론 아니며 자신의 지식과 傳聞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만큼 그의 일본에 관한 지식에는 오류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⁴⁵⁾ 그 밖에 壬亂에 관한 기사를 정리하거나 對日貿易關係(「倭人通貨」)와 군사관계(「南海防戍」)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으나 크게 주목할 만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의 일본에 관한 지식면에서 앞에서 본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壬亂後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행원과의 밀접한 교류와 그들의 사행록을 주로 참고함으로써 壬亂後 일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둘째, 許穆의 日本觀은 華夷觀에 입각하여 일본을 夷狄視하고 있다는 점에서 申晳·洪汝河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는 『東事』에서 종래의 崇明的인 小中華意識에서 탈피하여 朝鮮中心의 華夷觀을 구상함에 따라⁴⁶⁾ 이론적으로 더 철저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관념에 입각하여 그는 일본을

45) 예컨대 일본 천황의 기원을 桓武天皇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神武天皇을 착각한 듯하다. (桓武天皇은 50대 천황으로 재위기간이 781~806년이다.) 또 武家幕府 將軍의 제보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鎌倉幕府의 源賴朝家와 室町幕府의 足利家를 혼동하여 직접 연결시키는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가 보인다. 이것 역시 일본서적을 직접 보지 못하고 간접적인 자료(위에서 인용한 서적에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없다. 그러나 『海東諸國紀』에는 정확한 기사가 서술되어 있다.)와 제한된 정보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17세기 지식인의 공통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46) 韓永愚氏는 許穆의 국제관념에 대해 “『史記』 이래 中國正史에서는 주변 여러 소국들을 제후국으로 취급하여 外夷列傳으로 서술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다……(그런데 許穆이 『東事』에서) 한국사를 世家와 列傳으로 편성한 것은 이를테면 우리나라를 중국과 다른 또 하나의 독립된 天下秩序로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앞의 논문, p. 67)

‘黑齒列傳’으로 하여『東事』에 편입시켰으므로 그 체계 속에서 일종의 諸侯國의 지위로 취급하였다. 그는 또한 대마도를 우리나라의 부속도서로 포함시켰으며⁴⁷⁾, 일본의 풍속과 문화에 대해서도 ‘黑齒와 靺鞨은 정치와 풍속, 道를 전하고 물건을 보내는 것이 모두 우리 쪽에 있었다’⁴⁸⁾고 하여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수자의 역할을 해 온 사실과 함께 일본을 ‘문화적인 속국’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또 일본에 대해서 ‘동해 속의 雜種’(만주족에 대해서도 ‘女眞의 雜種’이라고 함) ‘蠻夷’ ‘黑齒’ 등의 표현으로 기술하여 夷狄視하였고 野蠻視하였다.⁴⁹⁾

한편 日本人에 대해서도,

“黑齒는 滄海郡의 동해 속의 雜種으로서 남만의 오랑캐와 더불어 재화를 교통하고 淫巧 奇技를 잘하며, 온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싸움과 칼 휘두르기를 좋아한다.”⁵⁰⁾

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았다.

셋째, 許穆은 일본의 종교와 풍속에 대해서도 야만시하였다. 그는 일본의 풍속이 귀신을 믿고 불교를 숭상하고 있는 점, 貴人과 婦인이 이빨에 검은 칠을 하는 풍습, 맨발과 민둥머리로 지내는 것과 배례를 하지 않는 인사법 등을 소개하면서 모두 오랑캐의 習俗이라고 평하였다.⁵¹⁾

넷째, 일본의 풍속에 대해 야만시하였던 許穆이었지만 일본의 새로운

47) 『東事』〈地乘〉

48) 『眉叟記言』續集 권 52 「上經說東事 劄」

49) 일본을 ‘外夷列傳’으로 취급하여 한국사의 체계 속에 최초로 편입시킨 사람은 洪汝河이지만 중국사에 대한 조선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체계화된 조선 중심의 華夷觀과 그 속에서 일본을 夷狄視하는 표현의 강도면에서 許穆은 洪汝河보다도 더 철저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許穆의 華夷觀과 日本觀은 順菴 安鼎福 등에게 계승되기도 하였지만 星湖 李瀾으로부터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星湖는 許穆이 일본을 ‘黑齒’라고 부르며 또 『東事』에서 列傳으로 취급한데 대해 “일본은 우리나라와 交隣抗禮國이므로 당연히 日本世家로 해야 한다” (『星湖僊說』권 18 經史門「日本史」)고 하였다.

50) 『眉叟記言』권 67 「自序 二」

또 〈與趙龍洲〉에서는 “蠻夷는 성질이 사납고 간사하여 교화하기 어렵다. (蠻夷 其性桀黠 爲難化)”고 하였다.

문화적 변모에 주목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당시 일본의 변화상에 대해,

“九州와 四方은 風氣가 각기 다르고 聲音·謠俗·嗜好이 같지 않다. 하물며 해외의 絕國으로서 聲教가 미치지 못하는 야만의 지역이라. 그러나 그 喜怒哀樂과 善을 좋아하고 惡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은 모두 같은 것이다. 지금 일본의 倭가 儒書를 구하고 俎豆와 禮俗을 알려고 하니 오랑캐로서 장한 일이라 하겠다.”⁵²⁾

라고 하여 일본인이 유학서적을 구해 보고자 하며 유교적인 儀禮와 禮俗을 알고자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蠻夷의 盛事’라고 하였다. 이 사실은 아마도 趙綱을 통해 들은 것 같은데, 이 절박하고 평범한 한 귀절의 기사가 실은 통신사행원들의 일본사행록을 제외하고는 壬亂後 일본의 사회상과 문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아닌가 한다. 한편 許穆의 일본에 관한 기록 중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1643년 趙綱이 일본으로 사행을 떠날 때 송별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그속에 『天地八陽圖』는 오랑캐의 귀한 책이니 구해 보기 바라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許穆은 「黑齒列傳」을 저술하기 이전부터 일본의 문화계에 대해 관심과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許穆의 日本觀의 특징은 아주 강화되고 나뉠대로의 체계를 갖춘 朝鮮中心的 華夷觀 속에서 일본을 철저하게 夷狄視하고 있다는 점과 그와 동시에 壬亂後 日本의 새로운 변화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의 독특한 日本夷狄觀은 18세기에 들어가 그의 후계자들이라 할 수 있는 星湖學派의 實學者들 사이에서도 많은 찬반논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51) 『東事』 「黑齒列傳」

Ⅳ.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 17세기 지식인들의 日本觀은 黨色이나 처한 입장에 따라 조금씩 구별되기도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공통적인 요소를 정리해 봄으로써 17세기의 日本觀의 特性으로 일단 성격지어 보고자 한다.

첫째, 壬亂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구체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의 경우는 일본과의 교류가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또 상호간의 사행의 빈도도 조선후기에 비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通信使行員이 남긴 日本使行錄은 申叔舟의 『海東諸國紀』와 1420년(世宗 2년) 報聘使로 사행했던 宋希環의 『老松堂日本行錄』 정도 밖에 없다.⁵³⁾ 이에 비해 조선후기에는 12회의 사행동안 40여편의 사행록을 남기고 있다.⁵⁴⁾ 요컨대 조선전기의 지식인들은 일본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이와 같은 단순비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壬亂을 겪은 이후인 조선후기에 와서는 일본

52) 上 同.

53) 조선전기의 경우 일본에 사행을 간 숫자는 약 60여회에 달하며 그 가운데 室町幕府의 將軍(日本國王)에게 간 사행만 해도 20여회에 달한다. 한편 조선전기의 사행록 중 『海東諸國紀』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사행시의 견문을 적은 사행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老松堂日本行錄』도 紀行詩로만 구성되어 있어 일본의 사회상에 대한 구체적인 견문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太宗 世宗朝에 걸쳐 對日外交의 일선에서 활약했던 李藝(1373~1445)의 『鵲坡實紀』가 있으나 이것은 본인의 저술이 아니고 19세기 후반(1872년, 高宗 9년) 그의 후손들에 의해 편집된 것이며, 또 일본의 사회상을 전하는 <海外日記>는 아주 소략하여 사행록의 범주에 넣기에는 부족한 자료이다. (조선전기의 對日使行과 『鵲坡實紀』에 대해서는 韓文鍾, 「朝鮮初期 李藝의 對日交涉活動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참조)

54) 이에 관해서는 拙稿, 「새로 발견된 日本使行錄들... 『海行摺載』의 보충과 관련하여...」(歷史學報 제112집, 1986) 참조.

이 이제 막연한 ‘交隣’의 대상국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조선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로서 인식되었다. 또 全國民이 직접 일본인을 접촉해 본 만큼 일본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일본은 언제나 재침해 올 수도 있는 나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통신사행원이나 일반적 지식인의 일본에 대한 관심도 조선전기와는 다를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둘째, 壬亂으로 하여 조선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구체화되는 계기를 맞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때 형성된 조선인의 日本觀은 壬亂 前에 비해 훨씬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壬亂을 겪고 난 후인 17세기의 조선지식인의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감정적 적개심이 여과되지 않은 채 표출되고 있다. 특히 17세기 前半期 壬亂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의 기록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다. 그래서 일본을 ‘鯨鯢’ ‘介鱗’ ‘犬羊’ 등으로 불렀고, 壬亂의 원흉인 豊臣秀吉이나 일본의 천황에 대해 ‘倭酋’라고 하는 등 일본을 극단적으로 夷狄視하고 野蠻視함으로써 심리적인 自足感에 빠지는 경향도 찾아 볼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적개심에 상응할 정도의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물론 李睟光을 비롯하여 申晳, 洪汝河, 許穆 등 몇몇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해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壬亂 정도의 전쟁을 겪은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빈약한 감이 드는 것이다. 그들 중에서 일본서적을 참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물론 이것은 의도한 바가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본에 대한 체계적인 저술을 남긴 사람도 없다. 洪汝河의 「日本傳」과 許穆의 「黑齒例傳」이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려고 한 것이긴 하지만 역시 앞에서 지적한 바의 한계성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17세기 지식인의 日本觀의 공통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일본에 대해 철저하게 夷狄視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이라고 느꼈는지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이 일본은 夷狄 내지는 禽獸의 나라이며 문화적으로 야만국이므로 교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은 17세기 초반에는 감정적 적개심을 카타르시스하는 방법의 하나로 쓰여졌지만 17세기 후반기로 가면서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형태로 전개된다. 즉 明·淸 교체 이후 조선에서 전개된 小中華意識의 틀 속에서 일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再造藩邦志』에서 보이는 申晸의 日本觀이 초기적인 형태의 小中華意識이라고 한다면 洪汝河, 許穆에 이르러서는 崇明的 성격을 점차 벗어나게 되면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洪汝河는 『彙纂麗史』에서 「契丹傳」과 함께 「日本傳」을 ‘外夷附錄’에 넣어 일본을 韓國史의 체계 속에 처음으로 편입시켰다. 洪汝河의 이러한 시도는 조선중심의 小中華意識에 바탕을 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아직 檀君朝鮮을 ‘外紀’로 취급하고 중국사를 ‘本紀’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歷代王朝를 ‘世家’로 하는 등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비해 許穆은 『東事』에서 단군조선을 우리나라 역사의 근원으로 하는 한편 역대의 왕조를 世家와 列傳으로 구분하여 수록함으로써 ‘朝鮮中心의 天下秩序’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체계 속에 일본은 ‘黑齒列傳’으로 편입됨으로써 일종의 諸侯國으로 인식되었고, 대마도는 우리나라의 부속도서로 서술되어져 있다. 洪汝河와 許穆에게서 보이는 小中華意識은 申晸의 그것과 달리 인종적 지리적 성격을 띤 본래적인 의미의 중국중심의 華夷秩序를 벗어나 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문화의 우열에 입각하여 상하관계로 규정하는 文化主義的 華夷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日本觀도 여기에 바탕을 둔 것이다. 특히 許穆의 그것은 崇明的인 성격을 벗어나 朝鮮中心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세계관과 역사 의식은 그의 후계자들인 남인 실학자들에게 계승되어져 星湖, 順菴의 三韓正統論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본래 小中華意識은 국제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비현실적인 의식으로 폐쇄성과 자기도취적인 고립주의로 빠져들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일본을 조선의 ‘諸侯國’으로 취급하였던 許穆과 洪汝河의 日本觀도 당시의 국제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小中華意識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현실과의 괴리를 더욱 노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것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실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⁵⁵⁾ 洪汝河와 許穆의 日本觀도 일면 남인 실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기도 하였지만 비판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 후기에 있어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學者群을 보면 대체로 남인 실학자가 그 중심인데 여기에는 洪汝河와 許穆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17세기의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과 저술은 거의 대부분이 군사적 정치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군사적 동향이었다.⁵⁶⁾ 그들에게 있어 일본은 문화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을 문화적으로 야만시하며 무시했던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관념에 기인하겠지만 한편으로 당시 일본의 문화로서 조선에 전래된 것이 거의 없었다는 데도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사회상과 풍속 등에 대해서는 17세기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일본에 대한 냉정성을 되찾고, 또 통신사행을 통해 일본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점차 관심이 기울여지고 저술 속에도 반영되게 된다. 洪汝河는 「日本傳」에서 통신사행원의 사행록을 바탕으로 일본의 풍속과 사회상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許穆에 와서는 일본의 유학의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蠻夷의 盛事'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17세기 후반기로 오면서 조선 지식인의 日本認識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18세기 실학자들의 보다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日本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55) 이 점에 대해서는 孫承詒, 「北學의 中華의 世界觀 克服」(江原大學校論文集 人文系 제15집, 1981) 참조.

56) 이 점은 통신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7세기에는 통신사행의 파견목적과 사행의 의의도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였고, 사행원들의 관심도 주로 정치 군사적인 면——즉, 일본이 再侵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내는 것이 통신사행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였다.